

지지부진할 수출 회복



Economist

김찬희

☎ (02) 3772-1537

✉ chee@shinhan.com

하건형

☎ (02) 3772-1946

✉ keonhyeong.ha@shinhan.com

4월 수출 YoY 14.2%, 수입 13.3% 감소. 무역적자 축소 연장

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2% 줄어 두 자릿수 감소폭이 유지됐다. 조업일수 (YoY -1일)를 감안한 일평균수출은 10.4% 줄어 감소폭이 축소됐으나 4개월째 두 자릿수 감소폭은 이어졌다. 수입은 13.3% 줄며 2020년 8월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다. 에너지 전반의 수입 감소가 주효했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해 무역적자는 26억달러를 기록해 개선세가 유지됐다.

지역별, 차별화 지속. 품목별, 자동차만 양호한 흐름 연장

일부 지역만 양호한 흐름이 이어졌다. 대미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4% 감소 반전돼 하강 추세가 강화됐다. 대일본 수출은 20.1% 줄어 감소폭이 추가로 확대됐다. EU향 수출이 9.9% 늘며 재차 증가 반전됐는데 이연된 자동차 수요와 러시아산 석유제품 대체수요 영향이 컸다. 대중국 수출과 아세안향 수출은 각각 26.5%, 26.3% 줄며 부진이 이어졌다. 한편 중동향 수출은 이연된 자동차 수요와 인프라투자 수요에 31.3%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CIS향 수출이 119.5% 급증했으나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품목별로는 자동차(+40.3%), 일반기계(+8%)가 증가했고 그 외 품목은 여전히 부진했다. 반도체(-41%)와 디스플레이(-29.3%), 무선통신기기(-34.3%) 등 IT 품목과 철강(-10.7%), 석유화학(-23.8%) 등 구경제 품목은 수요는 미진했다.

엇갈린 주요국 수요 속 지지부진할 수출

대부분 품목 수요가 미약한 가운데 주요 선진국 및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연된 자동차 및 인프라 수요가 수출 하강 속도를 늦추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의 봉쇄 완화 효과는 대면 서비스 수요에 그쳐 IT 품목 중심으로 누적된 재고 부담이 해소되기까지는 시차가 상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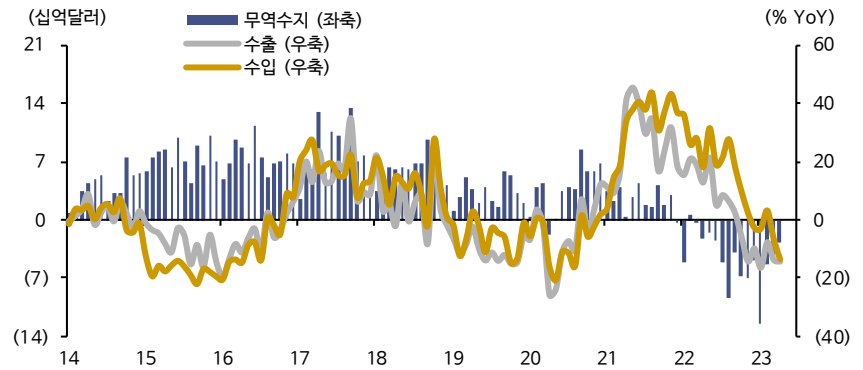
3분기로 가며 선진국 수요 둔화와 중국 수요 회복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대중국 수출은 부동산 투자 회복과 맞물려 재고 부담이 덜한 구경제 품목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가시화되겠다. 내수 회복과 연동된 수출 바닥 확인은 3분기 경으로 예상되나 회복 추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은 IT 수요가 동반되는 4분기 경으로 전망된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이연됐던 자동차 수요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저소득층의 초과저축이 소진돼 추가적인 수요 둔화가 우려된다. 3분기까지 주요국의 엇갈린 수요 속에 지지부진한 수출 흐름이 이어지겠다.

수출입 요약

	22.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3월	4월
수출 (% YoY)	(5.8)	(14.2)	(9.7)	(16.4)	(7.6)	(13.6)	(14.2)
대미국 수출 (% YoY)	6.5	7.9	6.4	(5.9)	16.3	1.6	(4.4)
대EU 수출 (% YoY)	10.4	(0.5)	5.3	0.1	13.0	(1.2)	9.9
대일본 수출 (% YoY)	(13.1)	(18.2)	(10.5)	(12.3)	(5.3)	(12.2)	(20.1)
대중국 수출 (% YoY)	(15.7)	(25.5)	(27.0)	(31.1)	(24.2)	(33.4)	(26.5)
원화 환산기준 수출 (% YoY)	13.6	(1.0)	10.8	(12.6)	(2.0)	(7.6)	(8.1)
일평균 수출 (% MoM)	(8.3)	(11.5)	3.8	(3.6)	5.5	0.9	(4.0)
수입 (% YoY)	9.9	2.6	(2.5)	(2.8)	3.5	(6.4)	(13.3)
일평균 수입 (% MoM)	(3.0)	(10.9)	(0.8)	12.6	(8.2)	(1.1)	(6.7)
무역수지 (십억달러)	(6.7)	(7.1)	(4.8)	(12.5)	(5.3)	(4.6)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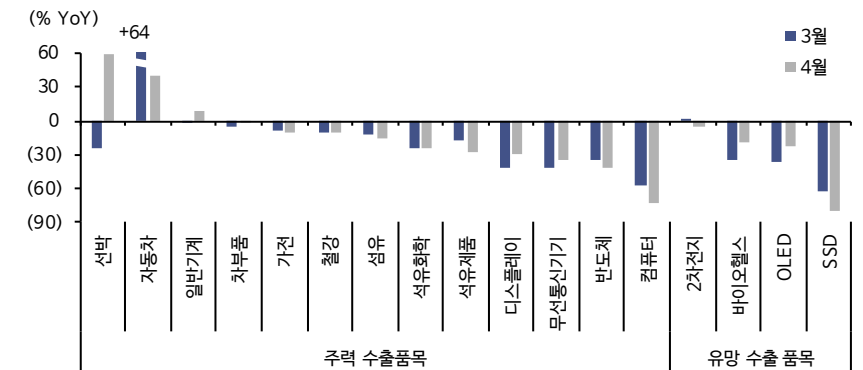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신한투자증권

한국 수출입과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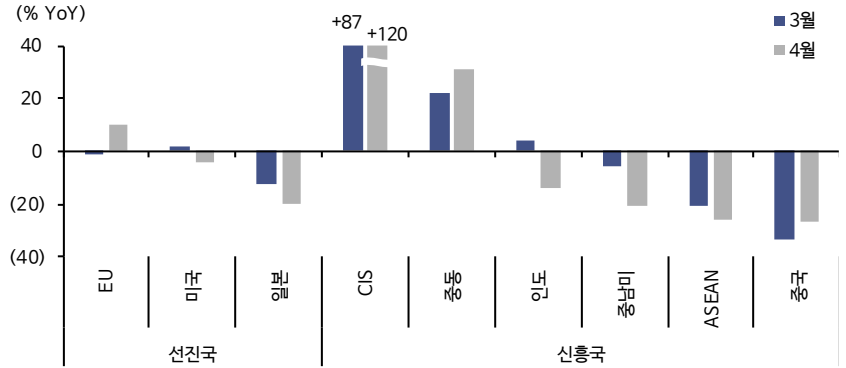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신한투자증권

품목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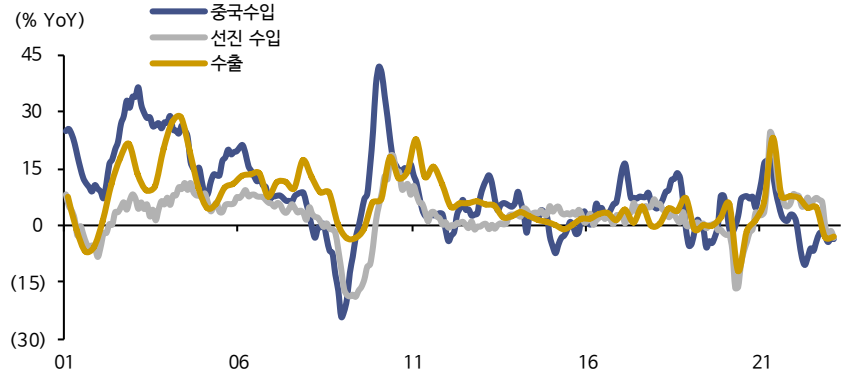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신한투자증권

국가 및 지역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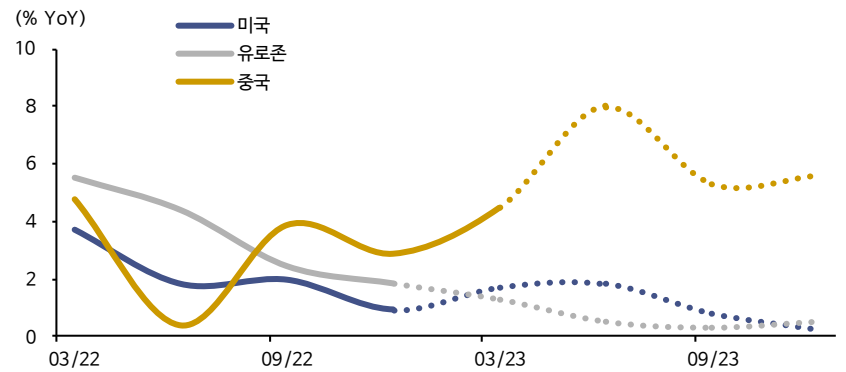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신한투자증권

중국 수입과 선진국 수입 물량, 한국 수출



자료: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Thomson Reuters, 신한투자증권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찬희, 하건형).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